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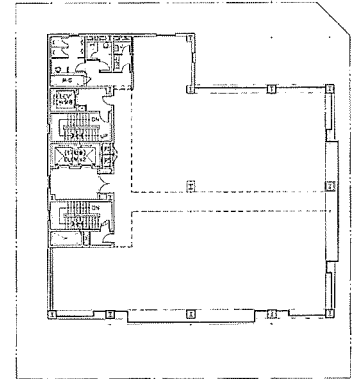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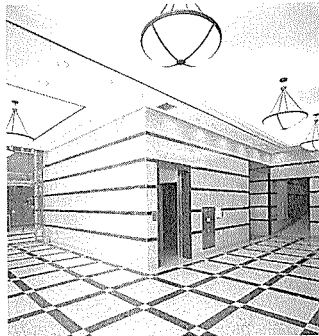
동교동 상진빌딩

Sangjin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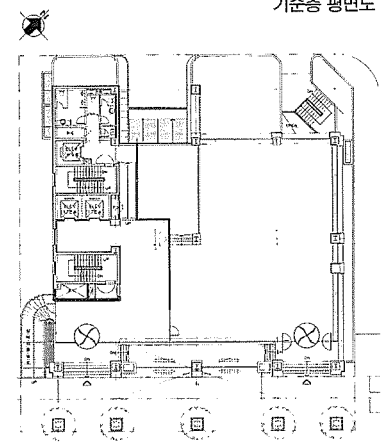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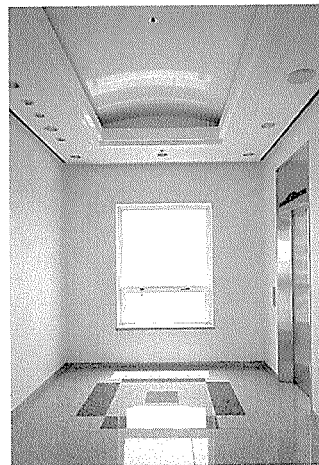
이충언 · 김광섭 / (주)원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Chung-Eon & Kim Kwang-Sub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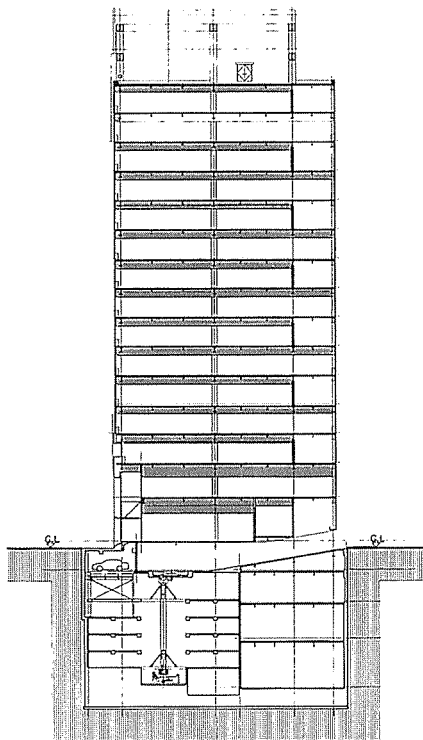
-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9-1 외 2필지
- 지역지구 근린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2종미관지구, 도시설계지구, 방화지구
-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대지면적 1,067.60㎡
- 건축면적 639.17㎡
- 연면적 12,322.59㎡
- 건폐율 59.87%(법정: 60%)
- 용적률 873.71%(법정: 900%)
- 규모 지하4층, 지상15층
-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 주차대수 101대(기계식: 74대, 자주식: 27대)
- 외부 마감 기坪석+문경석+칼멘레드/두께 18mm 컬러 복층유리
- 설계담당 윤영수, 양성수, 지성현, 윤태식
- 구조 예가구조
- 시공 LG건설(주)
- 설비 서일엔지니어링
- 전기 우신 E & G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종단면도



위치와 지역성은 건축계획상 디자인 요소에 많은 영향을 준다. 홍대 전철역 입구, 40m 폭의 전면 양화대로를 바라보는 젊음과 활기에 찬 공간. 주변의 군소복합건물들이 나름대로의 Context를 갖는 네모반듯한 모퉁이대지에서 이 Project는 시작되었다. 도시설계에 의해 확정되어진 건축지정선과 법규상의 제한요소들로 인하여 이 건물의 Mass와 Volume은 어쩔수 없이 정해져 있었고, 대부분의 사무소건축이 그러하듯, 계획의 의도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사무공간을 중심으로 한 기능과 동선의 합리적인 Lay-Out 구성과 사무능률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쾌적한 사무환경의 계획. 둘째, 기존도시경관에 순기능적이면서 동시에 Land Mark적인 요소로 비출 수 있는 입면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지하4개층은 기계, 전기실 등의 유틸리티와 승강기 슬라이드식 기계주차를 배치하여 초기계획단계부터 많은 검토와 시간을 할애하였고, 또한 건축주에 대한 투자의 합리적 보상을 고려하여 열원방식은 빙축열 시스템으로 정해졌다. 자사임대빌딩의 성격을 지닌 이 건물은 사무공간의 가변성과 융통성을 고려한 평면을 위하여 편심코어를 배치하였고 이로 인해 3면의 탁트인 조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외관상, 전면저층부기단은 또 하나의 작은 건물Mass를 보여주며 고층부의 Mass를 암시한다. 그 아래서 이루어지는 주출입동선은 내·외부와의 원만한 동선의 연결과 동시에 상징적 주출입 기능이 부여될 수 있도록 커튼월과 조형적인 캐노피로 다듬어졌고, 전면의 공개공지는 전면 가로보행자로 하여금 시각적 여유공간을 갖게 의도하였다.

입면이 가지는 단조로움의 해결과 Landmark적 요소의 결합은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고민한 화두였다. 여러 사례연구와 모델스터디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돌과 유리 그리고, 음각(Shadow)이었다. 문경석과 가평석의 배합에 그보다 진한 칼멘레드를 이용하여 매스의 컨피그레이션이 선명히 드러나도록 계획한 것은 도시환경에서 자라난 에너지의 충만함을 의도한 결과였고, 또한 커튼월과 그로 인해 생성되는 Shadow Box는 그 나름대로 신선함을 찾기 위함이었다.

계획단계부터 서울시 심의와 지하철공사와의 업무조율에 적지 않은 난제를 겪어야 했지만 돌아보면 설계자의 계획의도를 신뢰하여 원광까지 믿음을 준 건축주에 감사하며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표피는 단순한 면으로 인지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발달되었을 때, 커튼월의 Shadow Box에 걸리는 한자락의 그림자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는다. 도시속의 오브제로 이용자들에게 충실한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